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2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부품소재총괄과 이승우 과장, 김상순 사무관(02-2110-5614)		

보잉社, 한국에서 소재부품 공동 R&D 날개 띄운다.

– 보잉사, 한국 소재부품 기술에 러브콜 –
– 지경부, 보잉사와 『소재부품 글로벌 동반성장 MOU』 체결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2.22일(수)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美 보잉社와 생산기술연구원, 재료연구소, 인하대학교, 포스코 및 중소 소재부품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소재부품 글로벌 동반성장 MOU」를 체결했음

* 서명자: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, Matthew Ganz 보잉 Research & Technology 대표
* 일시 및 장소: 2.22일(수), 오후 3:00시, 르네상스H 4F 제이드-오펄룸

○ 금번 MOU는 지경부-보잉社 간 항공소재부품 공동개발 및 국내 소재부품의 對보잉 공급 확대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것으로,

-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그간 KAI나 대한항공 등을 통한 모듈 형태의 부품공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 보잉社에 소재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

* 현행 항공부품 공급 체계: KAI, 대한항공 등 일부 대기업을 통해 모듈 형태의 단위 부품을 보잉사에 납품, 특히 항공소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

○ 또한 금번 MOU를 계기로 포스코는 보잉社가 필요로 하는 첨단 소재개발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보잉社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

- KAIST, 인하대 등의 대학들도 보잉社와의 공동 기술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기로 함

[MOU 체결 배경]

□ 보잉社는 작년 하반기부터 항공 소재부품의 글로벌 소싱 대상으로 한국을 눈 여겨 보던 중

○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원천특허를 갖고 있는 Eco-Mg 등의 항공기용 소재 적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소재부품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

< Eco-Mg 개요 >

○ Eco-Mg은 마그네슘 합금에 산화칼슘을 첨가하여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기존 마그네슘이 가진 산화·발화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동시에,

– 무게가 철의 1/4에 불과하지만 비강도가 뛰어난 마그네슘의 장점이 그대로 유지 되어 항공기 등 경량화가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 기대가 큰 소재

○ 이 뿐만 아니라, 보잉社는 티타늄이나 복합재, 전자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

- 지경부의 글로벌 동반성장 R&BD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금번 『소재부품 글로벌 동반성장 MOU』를 체결키로 결정

[주요 협력내용]

< MOU 주요 내용 >

▶ 지경부와 보잉은 보잉 측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데 상호이해를 같이 한다.

▶ 양측은 이 같은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.

※ 금속합금(Mg·Al·Ti 합금 등), 나노기술, 항공기 결함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, 전자장비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분야를 확대

▶ 양측은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소재부품의 Supply Chain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.

□ 금번 MOU 체결에 따라 지경부와 보잉社는 향후 항공기용 소재부품에 적용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음

○ 우선, 공동 프로젝트는 Eco-Mg, 티타늄 등 항공용 소재분야와 Health Monitering Sysrem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임

※ 공동기술개발 협력 대상 프로젝트
1)Eco-Mg, Eco-Al(한국생산기술연구원), 2)티타늄, 복합재 등(재료연구소), 3)Health monitoring system(인하대), 4)비파괴 초음파 검사 장치(Humanscan), 5)친환경 신소재(포스코 등)

○ 이에 지경부는 『글로벌 동반성장 R&BD사업』을 활용하여 국내기관 및 기업들의 항공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고

- 보잉사도 공동펀딩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기업과 개발 제품의 항공기 적용 적합성 테스트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

* 글로벌 동반성장 R&BD: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('12년 35억원)

< 보잉社 협력에 따른 항공 소재부품 Supply Chain 개편 >



□ 둘째, 지경부와 보잉社는 향후 항공 소재부품분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협력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

○ 금번 공동 프로젝트 외에도 보잉社가 협력가능 분야로 제시한 열손실 방지 소재 및 코팅기술, 3D 시청각 장치 등의 분야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

* 보잉사 기술 수요 분야: 열손실 방지 소재/코팅기술, 무선·생화학·생체모방 센서, 고장방지·예측·자가발열 등 항공기 안전관리 장비, 3D 시청각 장치 등

- 보잉사의 품질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 발굴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임

□ 셋째, 국내 소재부품 업체들이 보잉社에 해당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상시적인 접촉 창구를 마련할 계획으로,

○ 지경부와 보잉社는 이를 국내 소재부품의 對보잉 공급채널로 활용하여 협력 확대에 대비하기로 함

[MOU 체결의 의의]

1 금번 협력은 항공 분야에서 단연 세계 최고 기업인 보잉社로부터 우리 소재부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로,

○ 첨단기술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술과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높아진 경쟁력을 반증

○ 그간 보잉社는 스페인, 러시아 등 5개국에만 해외 R&D 센터를 두고 국제 공동 R&D 협력을 진행해 왔으나,

- 금번 MOU를 계기로 소재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들도 보잉사의 공동 R&D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

2 향후, 보잉社는 까다로운 항공기 품질 요구수준을 충족해 준다면 한국에서의 소재부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

○ 그간,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서 항공 분야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국내 소재부품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항공분야에 진출하는 계기를 제공

3 또한 이번 협력은 국내 소재부품기업-글로벌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Win-Win형 비즈니스 모델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

○ 보잉社는 항공기 경량화 추진에 따른 새로운 기술수요를 우수한 한국 소재부품 기술을 활용하여 충족시킬 수 있고

- 우리 소재부품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R&D로 소재부품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소재부품기업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활용될 전망

□ 이날 행사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보잉社와의 협력을 이끌어낸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에 지속적으로 노력 해줄 것을 당부

○ 또한 항공기 경량화 추세에 따라 신소재에 대한 수요와 국내업체들의 항공분야 진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

-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항공산업과 같이 진입장벽이 높고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에 과감하게 진출하는 도전적인 기업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

○ 특히, 보잉社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부품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공동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

- 이에 Matthew Ganz 보잉 Research & Technology 대표는 금번 MOU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기술수준에 매우 놀랐으며

- 보잉의 글로벌 소싱 전략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공동협력분야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함

참고1 지경부-보잉사 간 MOU 체결식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 : 2월 22일(수) 15:00~16:20
/ 역삼동 르네상스H 4F 제이드-오펄룸

□ 주요 참석자 :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, Boeing Research & Technology Matthew Ganz 대표, 보잉코리아 Pat Gaines 사장, 생기원 나경환 원장, 인하대 박춘배 총장, 포스코 권오준 부사장 등

□ MOU 체결 당사자

○ 지경부 : 홍석우 장관

○ 보잉사 : Matthew Ganz BR&T 대표

* Boeing社와 공동R&BD 추진할 연구기관 5개, 소재부품기업 8개사 배석

□ MOU 주요 내용

○ Eco-Mg, Eco-Al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우리부와 보잉社가 공동 R&D 투자하고, 국내 항공 소재부품 공급기반 구축

○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보잉社 납품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국내 항공 소재부품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

□ 행사 일정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15:00-15:03 (3분)	▸ MOU 체결식 안내 및 내빈 소개	행사장
15:03-15:13 (10분)	▸ 장관 인사 말씀	-
	▸ 보잉사 Matthew Ganz 인사 말씀	영어로 진행, 한국어 순차 통역
15:13-15:18 (5분)	▸ MOU 경과 보고	KOTRA 김병권 전략본부장
15:18-15:28 (10분)	▸ MOU 서명 및 기념촬영	-
15:28-15:30 (2분)	▸ MOU 체결식 종료	사회자 클로징 멘트
15:30-16:20 (50분)	▸ MOU 관련 업체간담회	행사장

* 한국어로 진행하며 Boeing사에 전담 통역 배정 예정

참고2 보잉社 기업 현황

[1] 회사 개요

○ 설립일/본사 : 1916년 / 미국, 일리노이, 시카고
○ 임직원 : 70개국 17만여 명
○ 매출액 : USD 68.7 billion(2011년)
○ 사업분야 : 민간항공기, 군용항공기,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분야
○ 주요 매출분포(사업분야 별, 2011년 매출액 대비 비율로 표시)
Boeing Commercial Airplanes(52%),
Boeing Defense, Space & Security (46%)
Boeing Capital Corporation (6.2%)

[2] 업체 프로파일

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보잉은 세계를 선도하는 항공우주기업이자 최대 상용기, 군용 항공기 생산업체임. 전세계 90개국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 규모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수출기업임. 보잉 코리아는 1988년에 설립되어 서울, 부산, 대구, 사천을 비롯한 국내 6개 도시에서 190여명의 직원들이 항공기의 유지 및 보수, 물류업무 지원,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[3] 주요생산제품

번호	주요생산제품명 & 개요	제품사진
1	◉ 보잉 747 - 8 보잉사의 차세대 대형 여객기로 최고정원 467명. 대한항공, 루프트 한자 등에서 주로 활용 중	
2	◉ 보잉 787 드림라이너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로서 높은 연료효율을 자랑. 기체 절반 이상을 첨단 복합소재로 제작하여 기존 모델보다 연료 효율을 20%이상 높임	

[4] 對한국 비즈니스 현황

○ 최초진출년도 : 1988년 한국 지사 설립
○ 주요 판매제품 : 항공기 유지 및 보수, 물류업무 지원, 교육 서비스
○ 주요 협력업체 : KAI, 대한항공, LIG넥스원, 삼성테크윈 등